



# 가치 창출 중심의 사회공헌

SK이노베이션은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튼튼한 자생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원 활동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기획, 설립,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거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2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 전주빵 카페 오픈

##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2013년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결과 65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엄정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서울, 대구, 전주, 영광 등 4개 기관의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회계, 노무 등 기관별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도왔습니다.

##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성장 철학과 사회공헌 활동

자원이 풍부한 페루는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자원 개발의 장이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하루하루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빈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페루에서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았듯이 페루도 우리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글로벌 성장 철학을 기반으로 자립형 사회적기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페루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2007년 페루 정부의 농촌개발 참여 요청에 화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할 ‘SK-프로시너지(Prosynergy)’라는 NGO를 세우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기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하여 My School, My Eco-Tech Farm Program 등의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3 아차이와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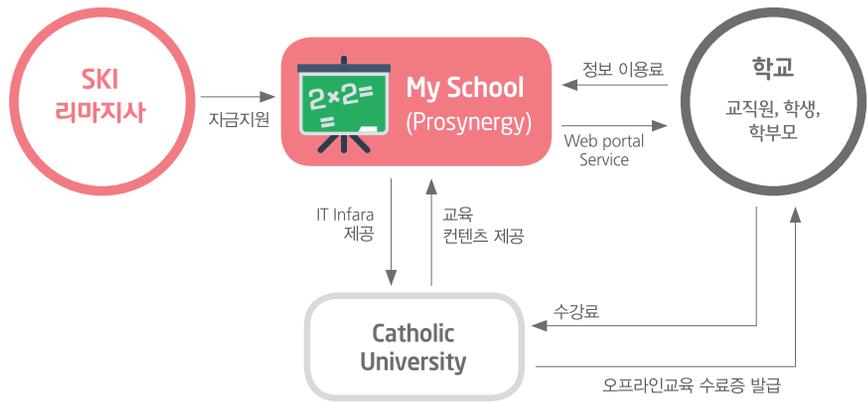
1·2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 설명회  
3 아차이와시 농장 전경

### 페루 교육 향상을 위한 My School Program

페루 현지의 부실한 공공교육 정책과 낮은 교육 관심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수준저하 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My School Program'을 추진하였습니다.

My School Program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teaching skill, 강의 자료 등의 학습 정보는 물론 e-교과서, 온라인 도서관, 문제집 등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가평가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의 교육 노하우가 향상되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러 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 사항 검토를 통해 페루 현지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 My School Program 참여 현황



### 농촌진흥 프로그램 My Eco-Tech Farm '아차이와시'

페루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을 이어가지만 극심한 농촌빈곤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농업 정보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농사실패 등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농가 육성을 위해 My Eco-Tech Farm Program을 추진해 왔습니다.

My Eco-Tech Farm Program은 당사 사업지역의 인근에 농가 자립을 위한 농업 정보 및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영농리더 양성 추진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진화시킨 농업기술센터 '아차이와시' 1호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1 아차이와시 1호점 오픈  
2 농촌지향 교육



3 아차이와시 건설 현장  
4 아차이와시 2호점 오픈

### 선순환적 협력모델로 발전한 '아차이와시'

아차이와시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세운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 농민들의 입소 교육, On-line Platform을 통한 농작물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전문가의 농가 방문을 지원하거나, 미소금융을 주선·지원하는 등 농업에 관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마을 자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차이와시의 의미가 남다른 점은 기업·정부·대학·NGO가 동참하는 협력 모델을 완성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SK-ProSynergy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함과 동시에 페루 지방 정부가 농민들에게 임대할 토지를 무상 임대(30년)하고, 현지의 카톨리카(Catholica) 대학이 영농 기술 교육을, 미소금융 NGO 핀카가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차이와시 1호점에 대한 페루의 정부·학계·현지 농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013년 7월 페루 필피차카(Pilpichaca) 지역에 아차이와시 2호점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50여 가지의 농업 컨설팅과 기술을 전수하고, 농사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며, 공동 판매조합을 통한 판로를 지원합니다. 향후 농산물의 마케팅 확대를 위해 공동 판매 조합 설립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 및 노하우 축적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두 개의 아차이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글로벌 거점 지역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순환적 협력모델, 아차이와시

